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23호
6월 8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동성애치유 회복이 답입니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개최...“정상적인 사랑으로 건강한 가정을”

제5회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지난 6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문 앞 광장에서 개최되어 맞은편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퀴어축제에 참가한 이들에게 건강한 가정회복을 위해 변화를 촉구하고 탈동성애를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다양한 강연과 문화행사로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올해 대회는 동성애가 국가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문화 행사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예상대신백석 총회장 이주환 목사(동탄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김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염안선 원장 등이 강단에 올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 반대를 역설했다.

1부 개회식에서 대회장 이주환 목사(백석대신총회장)는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90% 이상이 남성이다.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성교 때문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다음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면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곧 동성애 독재 시대의 시작과 다름없다. 연합해서 결사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우리는 건강한 가정과 국가, 아름다운 사회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국민대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건



강한 사회를 지킬 것을 확신한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준비위원장 김원평 교수(부산대)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모였다”면서 “정상적인 사랑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했다.

2부 국민대회에선 주제별 강연이 이어졌다. 조영길 변호사와 고영일 변호사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해,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선 원장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의학적 관련성에 대해 말했다.

특히 탈동성애 지원단체 아이미니스트리 박진권

대표는 “동성애에 빠진 15년은 성과 쾌락에 중독된 노예생활이었다. 지금은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는 건강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 동성애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고 발언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총신대 신학과를 비롯해 40여 단체가 부스를 설치해 홍보물을 나눠주며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기도회 후 양병희 목사, 김원평 교수, 이용희 교수 등 참석자들은 서울시청 앞을 출발하여 광화문 정문을 돌아 다시 서울시청까지 돌아오는 가두행진을 하며 동성애를 벗어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과 친선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미국군인 및 그 가족 추모...양화진 묘원에서

사단법인 한미친선연합회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미국군인 및 그 가족 추모행사가 지난 5월 30일(목) 오후 2시 양화진 묘원에서 사단법인 한미친선연합회(총재 반중수, 대표회장 홍사광) 주최로 열렸다.

추모행사는 개회 선언에 이어 한미 양국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한미 양국 국가의 연주로 한미 간의 굳건한 혈맹을 확인한 후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한국교회연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의 기도에서 이

어 (사)한미친선연합회 반중수 총재의 추모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모사, (사)한미친선연합회 홍사광 회장의 인사말씀 및 추모사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추모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의 한화로 이어졌으며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묘비주변 정비 및 헌화, 성조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미국군인들을 추모했다.

추모행사에는 한미친선연합회 회원 및 시민들이 양화진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미국군인 및 그

가족을 추모하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과 친선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추모행사를 주최한 한미친선연합회는 2007년 2월 14일 한미 양국 국민의 친선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순수 민간단체로 창설된 사단법인이다.

이 단체는 “한미동맹에 있어 정부차원에서 이룰 수 없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제2의 외교사절로서 양국 간의 관계 유지와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한미친선연합회 가족 모두 노력해 갈 것”을 다짐했다. 02)486-5541 <http://www.kufa.or.kr>



푸르초장은
바람을
스피너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0~44)

조용목 목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신자들에게 구원에 포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과 상급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하시는 것이 모두 구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환난 전에 성도들을 데려오시는 재림과 그로부터 7년 후에 이 세상을 직접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재림의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이유는 환난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하여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피신시키신 후에 죄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들림 받는 사람과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 들림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신앙상태가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하며 즐거움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첫째,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겔시메네동산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시합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제자들에게서 돌 던질만한 거리에 따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 후 제자들에게와 보니 지고 있으므로 “아찌하여 자느냐 시합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기도하신 후 다시 오셔서 보니 여전히 제자들은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나이가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와서 “이제는 지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대체 사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보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환난과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기도함으로 강건하여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둘째,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기록되기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예배와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위한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서로 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생활 할 때는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신당에 다니며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건강과 여유가 교회에 모이기를 폐하는 원인 제공이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건강과 여유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상태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 비유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지 못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는 일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예비하고 있는가 알아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것을 믿고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항상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영적으로 각성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서울강남지방회 박진철 목사(주흥순복음교회)는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후스 후’라는 인명사전에 등재되었는데(목양신문 제074호 1면-2017년 7월 8일자 1면에 게재) 최근 ‘후스 후’에 등재된 인물 가운데 당해연도 100명을 선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기념하여 감사패를 수여하는데 수여자로 선정되어 최근 감사패를 받았다. 이에 당시 게재되었던 내용과 감사패를 게재한다.

세계적인 인명사전 후즈후에 2017년 등재된 박진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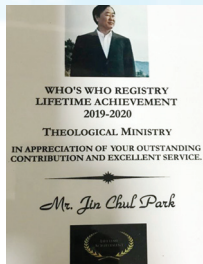
산업 지도자(Industry Leader)

- 직업 : 담임목사, 교수, 선교사
- 교육 :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박사(2012)
- 직업 : 성결대학교 객원교수(2009~현재), 강남지방회 주흥순복음교회 담임목사(1990~현재) 청와대기독교신학회, 지도목사(2002~2013) 미국 연방경찰 특수사관(1990~2003)
- 수상 내역 : 필리핀 적십자사 총재, 감사장(2016),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최우수 석사 논문상(1998)
- 창조적인 업적 : 제5차 국제학술대회, 논문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선교전략: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신학회(2015)
- 성과 : 필리핀 시장 내 사립종합병원 1개, 고등학교 1개, 초등학교 1개, 사립 도서관 1개, 보건소 4개, 반군 원주민 지역과 태풍 피해 지역에 주택 355채 건축 등 비정부기구, 정부 기관 및 아시아나 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파송된 선교사와 함께 소외 계층을 돕는데 헌신함
- 가족 : 처: 0명애 딸 : 박은혜 아들 : 박민석

[내이버 지식백과] 마르퀴즈 후즈 후 (시사상사사전, 박문각)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BCI)와 함께 세계 3대 세계인명사전을 발행하는 곳. 마르퀴즈후즈후사는 1899년에 문을 열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기관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후즈후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다. 후즈후인더월드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매년 세계적 인물 5만여 명을 선정,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 세계인명사전이 부장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정산업부문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Finance and Industry, 2002~2003) 또는 과학기술부문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등이다. 마르퀴즈 후즈 후에서 발행하는 인명사전은 100여년의 오랜 역사와 철저하고 일관된 편집정책 등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도서관 등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어 전문 인력정보 제공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박진철 목사



한 달 동안 나라위해 특별기도회

한교연 임원회, 오는 6월 11~12일 실행위 임시총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5월 21일(화) 오전 11시 한교연 대표회장실에서 제8-4차 임원회를 열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 한 달 동안 한국교회 비상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임원회는 한국교회 부흥 기도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전국의 기도원을 중심으로 교회와 연대해 비상 특별기도회를 전개하기로 하고 추진위원장에 공동회장 신광준 목사(민족통일선교회 대표)를 선임했으며, 위원으로 신석범 목사와 조태규 목사를 임명했다.

추진위원장 신광준 목사는 이날 임원회에 한국교회 비상 특별기도회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도회는 1차로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오산리기도원(경기), 한일산기도원(경기), 설화산기도원(충남), 군산 임마누엘수양관(전북), 안성 베테스다기도원(경기), 돌소리수양관(전북), 에베다기도원(충북), 주암산수양관



(경북), 세종 임마누엘기도원(충남), 용인 성신수양관(경기), 논산 만복기도원(충남) 등 전국 20여 개 기도원을 중심으로 한 달간 특별기도회와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7월1일에는 오산리기도원에서 오전 오후 저녁까지 234부 집회를 한교연이 전적으로 맡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를 비롯, 임

원과 회원교단 부흥강사를 단상에 세워 특별기도회와 집회의 대미를 장식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전국 기도원 중심의 비상 특별기도회와 함께 오는 6월 11~12일 충남 부창포 비제펠리스 리조트에서 제8-2차 실행위원회 및 인사총회와 함께 비상 특별기도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서헌제 교수 ‘한국교회 표준정관(안)’ 제시… 교회분쟁 예방

분쟁과 남세의 법적 기준이 되어줄 교회정관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주최하고 한국교회교단장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회와 세계동TF 등이 협력한 가운데 지난 5월 28일(화) 신촌성결교회에서 ‘교단, 교회 초창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인사말을 전한 이정익 목사는 “한국교회가 법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이를 예견하고 그간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 뒷받침하던 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발벗고 나서셨다. 서헌제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분쟁에 휘말리고 나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다”며 “이제 당면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교회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 늘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제해서 마련한 자리다.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는 예정통합과 합동, 합동개혁, 고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대 표적인 교단들의 모범정관과 분당중앙교회, 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강남중앙침례교

회 등 교회정관을 참조해 ‘한국교회 표준정관(안)’을 제시했다.

교회정관은 지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규범으로서 교회가 법적 실체(비법인 사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교회 분쟁이 총회재판국을 넘어 국가법원의 소송으로 가게 되면 교회정관은 교단헌법보다 우선하는 해결기준이 된다.

한장충, 제1회 기후변화 대응 포럼 개최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기후환경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목사)는 지난 5월 27일(월) 서진교회(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제1회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인사말에서 송태선 목사(한장충 대표회장)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욕심과 죄로 오염을 시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부끄러운 모습이 현실이 됐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성경적으로 분석해

신앙인들이 중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결심이 있는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자와 발표 주제를 소개하면서 오늘 전문가들로부터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만큼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제1발표에서는 오치용 목사(한장충 비전

70사업단장)가 ‘개혁주의 신앙에서 본 창조보전과 사랑마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개혁과 회개는 하나님의 두 손으로 기독교의 화해력을 실천하는 첫걸음을 기후환경변화 대응으로 창조의 보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주장을 했다. 또한 기독교 화해력은 네트워크로 힘을 얻게 되는 만큼 이 일에 한발도 늦추지 ‘기후변화 대응 공동광장’을 만들기를 제안했다.

제2발표는 최용수 교수(숙명여대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의 실내 대응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며, 각국의 사례, 그리고 한국의 상황, 그리고 그 폐해를 분석했다.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살피고 대응방안에 대해 에너지효율 제고의 건물 건축, 친환경 설계, 교통 및 에너지 부분에서 개선방안, 녹화사업, 예코마일리지 실천 등을 제시했다.



한국평신도협, 총재 이·취임식 가져

박우승 총재, 오는 11월 8일 미주대회 개최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대표회장 신영식 장로(한기평협)는 3대 총재 김범철 장로 이임 및 4대 총재 박우승 장로 취임식을 지난 5월 24일(금) 오전 세종호텔 2층 다 이올렛홀에서 갖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모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상임회장 김경웅 장로

의 인도로 상임회장 김형원 장로(세계대회 준비위원장)의 기도과 사무처장 이상복 장로의 성경봉독(히 10:22), 대표회장 신영식 장로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제하의 말씀 선포 순서로 진행됐다.

신영식 대표회장은 “제1회 세계대회를 기점으로 깨나, 호주 등 전 세계에서 대회를 열어 디아스포라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이제는 다시 활발하게 기동력 있게 준비해서 세계에 나가서 디아스포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올해 11월 8일 미국대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디아스포라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4대 총재 박우승 장로를 모시고 협의회가 다시 재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어 3대 총재 김범철 장로가 “평생을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마운 일인가”라며,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잘 발전시켜 세계에 복음을 전할뿐 아니라, 우리의 민족을 격려하는 일을 계속하길 바란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필라델피아기도회

통일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이하 세계총회는 지난 5월 12일(주일) 오후 5시 필라델피아 소재 살롬은목교회에서 한반도 복음통일을 위한 필라델피아기도회를 가졌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김승호 목사의 대표기도, 김진훈 목사의 성경봉독, 마애영 선교사의 특송, 세기종 2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장석진 목사의 녹 10:30~35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한반도복음통일과 성경적 해법’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계속된 기도회는 전영현 목사의 환영사,



최낙신 목사의 대회사에 이어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이장원 목사(Perns기도동지회 부회장)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복음통일을 위하여’, 김정철 목사(필라델피아 회장)가 ‘필라델피아의 복음화와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마영

에 선교사(국제탈북민인권협회 회장)가 ‘혈빛고 굶주리는 북한동포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이대우 목사(미기총동부 공동회장)가 ‘750만 재외동포를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FIM국제선교회, 2019년 이슬람선교학교 개강

7월 8~10일까지 총 11강의 진행

이슬람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FIM국제선교회(대표 유해석 선교사, 이사장 천환 목사)가 2019년 이슬람선교학교 인턴십을 개강한다. 이슬람선교학교는 서울 대림동 FIM선교센터에서 오는 7월 8일(월)부터 7월 10일(수)까지 3일간, 총 11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로는 이집트선교사로 활동했던 FIM국제선교회 대표 유해석 선교사를 비롯해 칼빈신학대학교 대학원 김지호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 전 시아과 무슬림 개종자이면서 현재 영국 웨일즈에서 지역 중인 아즈메리 목사,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지역 중인 강재훈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등 이슬람 선교 전문가들이 나선다.



특히 이번 커리큘럼은 이슬람에 대한 이론과 이슬람권에서 현재 지역 중인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이슬람의 역사와 미래를 진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슬람권 선교의 실제 △이슬람과 수피즘 △이슬람의 여성권과 결혼관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 예수와

이차 무엇이 다른가 △무슬림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이슬람권에 부는 세바람 등이 준비돼 있다.

또 유럽의 이슬람 인구성장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통해 어제의 유럽이 오늘의 한국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해석 선교사는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2018년 8월을 기점으로 230만 명을 넘어서 2018년 9월 말 현재 2,321,820명(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9)에 이르며, 한국의 주민등록인구 약 51,635,268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8)의 4.4%에 달한다.”고 전했다.

성결교회 선교 113 연차대회 및 정기총회

총회장 문정민 목사, 부총회장 김윤석 목사 선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문정민 목사) ‘성결교회 선교 113 연차대회 및 제98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 예상80주년기념관에서 ‘여호와께 성결(출 28:36)’이라는 주제로 예정 신하 전국지방교회에서 참석



한 총회 대의원들과 대회원, 교계 초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첫째 날에는 개회예배, 성찬식, 경배와 찬양, 총회 신입원 선출 및 취임식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경건회, 경배와 찬양, 회무처리, 연차대회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

는 경배와 찬양, 경건회, 회무처리, 폐회에예순으로 진행하여 이번 연차대회와 총회 일정을 은혜롭게 마무리 했다.

첫째 날 개회예배에서는 윤기순 목사(제97회기 총회장)가 ‘복음을 위한 비전(히 11:8-1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둘째날 저녁 부흥회 형식으로 진행된 연차대회에서는 고용복 목사(신월동교회 원로)가 참석한 대의원 및 대회원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으며, 셋째 날 폐회예배에서는 문정민 목사(신인 총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한편, 총회 마지막 날에는 금년 98회기에 목사안수를 받은 안수 대상자들이 대의원들에게 인사말 하는 등 전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자활과 자립을 위한 특별집회 개최

신생교회와 해돋는 마을 공동주최로

서울역 노숙취급제와 쪽방촌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어르신을 20년 동안 섬겨온 신생교회,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담임 목사)은 지난 5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란 주제로 자활과 자립을 위한 특별집회를 신생교회에서 진행했다.

첫째날 20일은 소프라노 임정화 교수(백석대학교)의 은혜로운 찬양과 기곡을 전하고 어려운 공약과 같은 시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늘 기도로 함께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과 진솔한 간증으로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해돋는 마을 홍보대사로 위촉받았다.



둘째날 21일 탈렌트 임동진 목사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영생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 나가자며 자활과 자립을 권면하였고 특히 환난 속에 있을 때마다 늘 함께 해주신 주님만이 소망임을 간

증으로 나누며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섬겨온 임동진 목사를 해돋는 마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심해원 목사)는 지난 5월 28일(화) 임마누엘교회(담임 심해원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안희철 목사의 사회로 서기 김훈배 목사의 대표기도, 직전지방회장 박상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신 8:1-3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를 고백하고 나의 나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역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재무·회계 박운석 목사의 헌금기



도, 지방회장 심해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계속해서 2부 지방회에서는 각종 회

무를 처리하고 임마누엘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애잔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아름다운교회 창립 및 목사안수 임직예배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장호순 목사)는 지난 5월 25일(토) 오전 11시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8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담임 김정수 목사)에서 창립 및 목사안수 임직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부흥하고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지방회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성기는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부회장 원문경 목사(세종중앙순복음교회)의 기도,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의 성경봉독, 연합찬양팀과 청신교회(담임 김인찬 목사) 성도들의 은혜로운 특송, 직전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행 20:17-24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바울의 모범적인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삶, 바른 복



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고 전하며 격려했다. 이어 지방회장(안수위원장)의 창립선포와 목사안수 서약, 안수위원 오일선 목사, 황수반 목사, 교단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의 안수기도와 성의적용 약속제가 진행되었다. 안수위원장 장호순 목사는 임직자에게 목사에 임직되었음을 공포하고 임직증서와 임직패를 수여하였다. 교단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청신교회)와 교단 증경부총회

장 조원의 목사(추계교회)의 권면, 유구지역 연합회장 권혁봉 목사(유구중앙장로교회)와 지방회장 장호순 목사(순복음금강교회)의 축사,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의 헌금기도, 아름다운교회 김시원, 김이삭의 헌금송, 김정수 목사의 광고, 증경지방회장 류승장 목사(순복음이울림교회)의 축복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순복음주품에교회 조속회 목사 안수식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준 목사)는 지난 5월 25일(토) 오전 11시 순복음주품에교회에서 조속회 전도사의 목사안수식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시회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신병설 목사(주사랑순복음교회)의 대

표기도에 이어 지방회 서기 민병훈 목사(예광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순복음후영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사 4:1-10 말씀을 본문으로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선 여성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드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하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빛낸 여성이 되었다”면서

“이 시대 목회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안수식에서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는 먼저 조속회 전도사로부터 임직서약을 받고, 곧바로 조속회 전도사의 안수례를 진행하였다.

안수례가 진행되는 동안 지방회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함께 안수 받는 조속회 전도사들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안수 후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는 조속회 전도사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다. 이어 안수위원들은 안수 받은 조속회 목사에게 성의를 확인하였으며 임직증서와 임직패를 수여했다.

제3부 축하의 시간에는 증경회장 이문근 목사(이목순복음교회)의 권면과 증경회장 김윤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와 증경회장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의 축사 및 순복음주품에교회 성도들의 축가, 안수 받은 조속회 목사의 담사가 있었다.

이어 증경회장 오병용 목사(아멘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조속회 목사의 아름답고 건강한 목회를 소망하며 축하와 축복의 모든 시간을 마무리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준 목사)는 지난 5월 16일(목) 오전 11시 과산순복음교회(담임 기호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윤광진 목사(늘푸

른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기호선 목사(과산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기목사는 마 26:31-46 말씀을 본문으로 ‘양과 염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양은 수고하고도 안한 것처럼, 그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묵묵히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며 “예수께서 사기꾼, 매국노와 다름 없는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과 같은 사회

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사회적으로 간한 자들, 교회 안쪽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이 되기를” 축복하였다.

이어 조속회 전도사(순복음주품에교회)의 헌금기도와, 지난 1년 동안 지방회장으로 수고한 직전회장 오병용 목사 감사패 증정,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의 진행으로 재무 정재광 목사, 회계 조재호 목사 보고와 김용 목사의 총무보고 및 기타 위원회 보고와 안건을 처리한 후, 교단의 발전과 지방회 신하 교회의 부흥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 한 다음 김윤용 목사의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장소를 옮겨 과산 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다.



성령의 역사로 형통하리라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정운기 목사)는 지난 5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순복음목자교회(담임 김형시바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서기 차재현 목사(엘벤엘호동교회)의 사회로 안선자 목사(대화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정운기 목사(대전양무리교회)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수 1:6-9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형통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꿈을 가지라, 바른 복음을 전하라, 성령충만 하라”고 강조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가나안 정복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일진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쓰임 받은 바른 종으로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형통하게 됨”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순복음목자교회의 부흥과 김형

시바 목사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 총부 청주시 미원원의 ‘미동산 수목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의 기운과 향기를 마음껏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교제의 길을 걸었다.

예수사랑교회 예정희 목사 안수식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이경진 목사)는 지난 5월 25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19-58에 위치한 예수사랑교회에서 예정희 목사의 목사 안수식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사회자의 개식사 후 서기 육준수 목사의 대표기도, 윤인주 전도사(오순절찬양교회)와 최빛나 전도사(전주 권능교회)의 특송, 직전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행 16:6-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환상을 본 후에 라는 제목의 설교, 재무 강인덕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안수위원장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임직예배는 임직자 효명과 서약 후, 안수위원 박형남 목사, 한승수 목사, 김정수 목사가 안수 하고 성의 축의, 약속제를 하였으며, 안수위원장이 공포하고 안수패를 수여

하였다. 이어 증경지방회장 김정수 목사의 권면, 교단 증경총회장 최광덕 목사의 축사 후 예정희 목사가 인사말 전하고 축도하며 임직예배를 마쳤다.

풍무순복음교회 창립예배

김포지방회

김포지방회(회장 이득상 목사)는 지난 5월 27일(월) 오전 11시 경기도 김포시 풍무

동 76-15에 위치한 풍무순복음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근수 목사의 사회로 최종남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이득상 목사(원릉교회)의 설교, 증경회장 박재빈 목사의 축사, 김병숙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은 풍무순복음교회 창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축령교회 설립예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이경진 목사)는 지난 5월 27일(월) 오전 11시 축령교회에서 동교

회 설립예배를 드리고 교회 창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서기 육준수 목사(향기로운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강인덕 목사(순복음본향교회)의 대표기도, 분소

원 전도사(인현순복음교회)의 특송,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순복음목장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한 목사는 시 136: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창조주 여호와께 감사,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 기업주신 여호와께 감사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회장 이경진 목사(다사랑교회)의 교회 설립 선편이 있는 후, 한창호 목사(로렐나무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박형남 목사(선유생명교회)와 김동욱 목사(울진 삼당교회)의 권면, 지방회 부회장 오세준 목사(순복음천주교회)의 축사, 박웅진 전도사(축령교회)의 광고,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축도로 설립 예배를 마쳤다.



생명의 말씀



김인찬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중정총회장
· 청신교회 당회장

하스기아가 왕이 되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쫓박 못하고 그들의 법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스기아는 25살에 왕에 오르면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앗수르와의 동맹을 파괴합니다.

본문 18장 4절을 보면 앗수르 때문에 들어온 산당들 주상들을 하스기아는 다 없애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스기아가 앗수르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없애버린 것들도 굉장한 일이지만 더 굉장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동안 놋뿔을 만들어 섬긴 것이

였습니다. 전통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뿔을 통해서 불뿔에 물려 죽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놋뿔을 만들어서 그걸 보게 함으로서 백성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놋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스기아가 놋뿔 우상을 없애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8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하루아침에 제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놋뿔제단 그걸 건드리면 지금까지 섬겼던 많은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왕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왕도 쫓박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스기아는 백성들이 보물로 여기던 놋뿔까지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스기아는 가정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8장 2절을 보면 하스기아의 외조모가 ‘스기라’란 말이 나옵니다. ‘스기라

선지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스기아는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스기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개척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스기아는 왕이 되기 전부터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스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열어 주셔야지 앗수르에 쫓박 매면서 앗수르가 섬기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놋뿔을 모시고 이러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는 결국 왕이 된 이후 결단하고 다짐한 일들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스기아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라가 강성하고 복 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놋뿔과 잘못된 우상을 하스기아를 통해서 깨뜨리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법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성

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놋뿔을 쳐다 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세상만 따라 갔구나”. 바로 그런 깨어짐의 은혜를 통해서 아디를 가든지 잘되고 아디를 가든지 행동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스기아가 앗수르와의 동맹을 파괴하니 앗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185000명의 정예부대 앗수르의 최정예 부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85000을 다 처리하고 정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통해 나를 깨뜨리던 하나님께선 더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가 부서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서졌다가 내일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지니 하나님이 그를 엄청난 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포도도 으깨질 때 포도주가 나오고 밀도

다 부셔져야 거기서 따끈따끈한 우동이 나오는 것처럼 하스기아의 개혁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된 것 모든 것들을 깨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날마다 깨뜨리고 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가말리엘 최고의 명문 학부의 졸업생이었습니다. 귀족가문이고 머리도 똑똑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부셔뜨려야 합니다. 내 고집, 내 교만 부셔뜨려야 합니다. 올라가고 싶은 내 명예 부셔뜨려야 합니다. 부셔뜨리면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하스기아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앗수르의 우상과 이스라엘의 놋뿔을 깨뜨려 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들 죄의 모습들을 용기 있게 깨뜨려 버리므로 하나님께 칭찬 받는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정

총신대 제7대 이재서 총장 취임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는 지난 5월 30일(목) 사당캠퍼스 대강당에서 제7대 이재서 총장 취임 감사 예배 및 취임식을 가

졌다. 이날 이재서 총장은 “교단과의 관계 복원, 학교 구성원의 상호 협력, 조속한 시일 내에 정이사체제 구성 등 10가지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계자료 업선 제공 자유권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는 지난 5월 3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 취지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동연구소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목회자 및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엄격한 검수를 거쳐 선별된 통계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회에 대한 왜곡 편파 막아야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5월 30일(목) 한 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2019 한국교회원훈보위위원회 정기포럼-비판적 저널리즘과 한국교회의 대응’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특히 교회에 대한 왜곡 편파 등 가짜 뉴스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뮤지컬 선보여



문화사역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선교단체 문화행동 아트리(대표 김광영 목사)가 어린이 뮤지컬 ‘온 세상의 하나님’을 선보였다. 문화행동 아트리는 “무대에서 ‘복음’만을 선포하는 헌신된 문화선교사들이 다시 한 번 성경 속으로 어린이들을 이끌어가려 한다”고 전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가 신학대 기숙사의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고?

지금 우리 사회는 한없는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유명 모 신학대학의 기숙사 새벽예배 규정을 바꾸려는 권고를 하였다.

신학대의 기숙사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기 위한 교역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을 비롯하여, 신학교 학부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입실하여 생활하게 된다.

신학대학의 기숙사는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신학생 때부터 새벽예배를 통한 경건의 훈련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숙사 입실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새벽예배 드리는 것을 약속하는 서

약서를 받는다.

그런데 모 신학대학에서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기숙사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 학생은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고 본인이 서명하고 기숙사에 입실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학교는 신학대라는 특수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곳으로 인지하고 갔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권위가 기숙사의 규정을 바꾸라고 신학대학에 압력을 넣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인권’이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개념이, 무소불위의 국가 기관에 의하여 과잉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듯하다.

신학대학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헌법 20조)와 ‘교육의 자유’(헌법 31조)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며, 또한 기독교라는 종교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그리고 신학대 기숙사에서의 새벽예배는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이를 고치려는 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신학대학은 비기독교인을 학생으로 받을 때에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학은 학생 본인들이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므로,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신학대학들이 학교 운영에만 신경을 써서, 교역과정이 아닌 학과를 증설하는데 신경을 쓴다. 이 신학대학에도 비기독교인이 들어올 수 있는 학과가 있는데, 이번처럼 빌미를 준 것이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그리고 각 교단에서는 산하 신학교에 대하여 종합대학이 되는 것만 지켜보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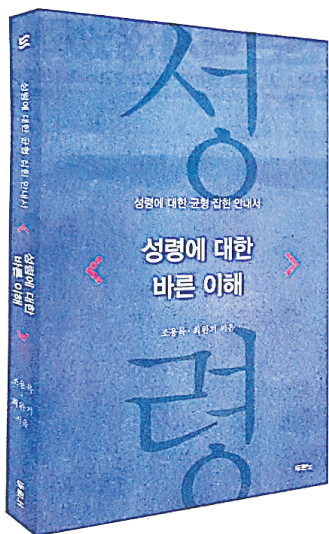
고 경건하고 실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참다운 선지학교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와 신학대를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난(至難)한 일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삼시간의 일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대책을, 신속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인권위의 지나친 월권이며, 한 학생의 진정을 듣는 척하며, 결국 한국교회 전체를 허물려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에 살펴봐야 한다.

만약 국가 기관이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허물려는 꾀(詭計)가 엿보인다면 한국교회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형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령을 근간으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자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원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목양포커스 / 목회자평생교육

김용덕 목사 // 교육학박사·예하성 증경총회장

목회자 연장교육 ... 목회자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의 연장교육 차원에서 2007년부터 올해로 12년간 계속해 오는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는 오는 6월 10일~14일까지 3박 4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과 신학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그가 사명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된 동기는 과거 미국에서 목회할 때 받았던 목회자 연장교육의 유익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 미국의 목회자 연장교육에서, 성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아, 이제는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목회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목회자 연장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지금까지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학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68차 총회에서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의 설립에 대해 발의한 나 자신도 39년이 넘는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또한 다른 곳에서 배움도 가졌지만, 설교준비를 하며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 이는 어느 목회자라도 성도들에게 풍성한 쥬스를 먹이기 위해 나와 같은 심정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목회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가운데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에 목회자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보다 앞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 즉 예수교대한교의 성회 소속의 목회자들에게 총회차원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평생교육’을 통해 목회자의 자질향상과 급변하는 시대에 목회에 필요한 신학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교회 안으로는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등이 단적 교리가 만연하고 있다. 밖으로는 동성애 합법화 등을 비롯하여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의 확산 등 총체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흔들며, 또한 4차 산업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목사를 대신하여 설교를 한다고 하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확고히 하며, 정통신학과 복음주의적 신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함양하며, 또한 시대를 읽는 다양한 식견을 갖추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회자 평생교육이 필요한 시대이다. 즉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올바른 목회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평생교육이 지속적으로 필

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번 제68차 총회를 통해서 이미 결의한 대로, ‘목회자 평생교육’을 오는 10월~11월 사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처음 개최하려고 한다. 이미 다양한 목회자 세미나 또는 목회자 심포지움 등에 참석해 본 경험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는 바와 같이, 교육에는 다 교육비가 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도 이제는 최소한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목회자로서 자신이 먼저 자질이 향상되어야, 성도들에게 보다 풍성한 쥬스를 먹이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의 ‘목회자 평생교육’이 해가 거듭할수록 목회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 데 꼭 필요한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김용덕 목사

탈동성애운동가에 악의적 비난기사

국내 언론 가운데 가장 강력히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 반대활동에 대하여 강한 적의를 품고 온갖 악의적 기사를 쏟아내던 뉴스앤조(이하 뉴조)가 동성애 관련 가짜뉴스 보도로 인해 김원평, 김지연, KHTV, GMW연합 등으로부터 5월 22일 기준 2억 5천만 원에 가까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고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밝혔다.

뉴조는 자칭 ‘한국교회를 깨우는 독립언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적 가르침과는 반대로 국내언론 가운데 가장 강력히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한겨레신문을 필두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단정했다. 특히 뉴조는 동반연 실행위원장 김원평 부산대 교수,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KHTV, GMW연합 등을 대표적인 가짜뉴스 배포자 및 가짜뉴스 유통체널로 지목하여 보도하였는데, 이밖에 이들은 뉴조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뉴조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을 강력히 옹호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쿼인신학을 이단이라 규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온갖 독설을 쏟아 놓았다.

예를 들면 뉴조의 100 기사는 2018년 1년동안 340여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동성애를 옹호

하고, 동성애 반대활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무려 87개를 작성하였다. 100 기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비난하는 기사를 7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탄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잡혀간다” 차별금지법의 진실” 등이 있다. 특히 1000 기사는 이단으로 규정된 인본과 목사를 옹호하는 기사를 7개를 작성하였는데, “백석대신, 통합, 인본과 목사에게 사과하라”, “이단이라 혼들어도 사랑이 이긴다” 등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또 한국교회의 동성애 반대 활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14건이나 작성하였고,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거나 폐지 운동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 비난하는 기사를 15건 작성하였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가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번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주장하는 뉴조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동성애를 지원하는 쿼인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 주요교단들은 뉴조를 이단옹호언론으로 지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뉴조는 자칭 기독교 언론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한다며 더 이상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5. 31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연합 단체)



겸손한 자세로 더욱 세계선교에 헌신

세션협 제136차 월례회 흥천새빛교회에서 가져

세계선교협의회(회장 한구섭 목사) 제136차 월례회 가 지난 5월 30일(목) 오후 1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244번지 소재 새빛교회(오광근 목사)에서 개최하여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제1부 예배는 오광근 목사(새빛교회)의 인도로 김서경 목사(열방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황정희 목사(웅성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황 목사는 약 4:10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앞에 낮추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겸손한 자세로 더욱 섬기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서 손평의 전도사(성광교회)의 봉헌기도, 오광근 목사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선교협의회를 위해서, △회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조용주 목사(행복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회장 한구섭 목사의 사회로 서기 진인

숙 목사의 회원점명 18명 참석,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의 전회의록 낭독, 임양보고는 임양실장 김경수 목사, 임양회계보고는 전종호 전도사, 회계보고는 송민자 목사, 총무보고는 전순임 목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각각 보고했다.

안건토의 △세션협 간판 제작 비용 지급, △6월 3일 동남학원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는 보고, △입학식에 학생과 교사 식대를 후원하기로 결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새빛교회는 웰빙 식단으로 정성준비하여 회원들에게 중식을 대접하고, 회원들은 1시간 동안 교회 주변과 뒷밭에서 약초 및 채소를 채취하는 즐거움을 가졌다.

세션협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한구섭 목사, 부회장 권은숙 목사, △총무 전순임 목사, △서기 진인숙 목사, △회계 송민자 목사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 △임양실장 및 선교사 김경수 목사 △임양회계 전종호 전도사

제5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 성황리에 개최

제5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가 지난 5월 31일(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소강당에서 열렸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영어로 공부하는 학위 과정을 국내 최초로 개설하는 등 복음주의 신학과 더불어 영어로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영어학과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 수의 감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국교회의 부흥에 도움을 주고자, 2015년부터 매년 이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31명이 참가했다. 정흥호 총장은 따뜻한 환영사로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이어서 김다나엘 교수의 대표기도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직전에 이어서 올해도 참가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참가 학생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 예선전을 치렀다. 예선을 통과한 17명의 학생들이 결선을 치렀다.

최고의 영예인 총장상은 하솔민(그레이트 크리스천 스쿨) 학생이 받았다.

최우수상인 믿음, 소망, 사랑상은 김재호(충원남 고등학교), 권나혜(이브 크리스천 스쿨), 그리고 김

지명(그레이트 크리스천 스쿨) 학생이 각각 받았다. 장려상은 김기은, 조수정, 정하진, 이나에, 강한솔, 주성훈 학생 등 총 6명이 받았다.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낱말을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일본신학교 제3학기 집중강의, 학구열 뜨거워

하나님의성회
일본신학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일본지부회 김 양희 선교사가 후원하는 하나님의성회 일본 신학교 3학기 과정이 지난 5월 6일(월)부터 5월 9일(목)까지 4일 간 일본 하라카타시에 있는 하나님의성회 일본신학교에서 신재영 교수와 김건수 교수의 집중강의 형태로 진행 되었다. 복음화율 0.9%의 척박한 일본지역에



서 현지인을 전도하여 신학교정을 이수토록 하여 일본 현지인들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 열심을 다해 전하고 있는 김양희 선교사의 수고와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고, 또 일본인 신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과 뜨거운 학구열로 인해 더 열정적인 강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목양신문 지면보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목양신문' 접속 후
'목양신문 보기' 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목양신문 이메일
mok2677@naver.com

2019년도 목사 임직감사예배 드려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 목사 임직예배가 지난 5월 27일(월) 오후, 방 화동 소재 창조교회에서 성도와 가족 및 교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보에 전도사 (소망농아교회)의 목사임직감사예배를 드 렸다.

임직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기성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방은혜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의 설교, 안수식이 있 었다.

김덕영 목사는 행 20:22~24 말씀을 본문 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랑'이란 제목의 설 교를 통해 "사랑을 받은 자는 첫째로 겸손해 야 하며, 둘째로 사랑자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셋째로는 주 예수께 대한 신뢰 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임직 서약과 안수위원들의 임직 지를 위한 안수기도와 기운 작의식, 그리고

임직증서와 패 수여, 박재용 목사의 축사와 김상기 목사의 권면의 순서에 이어 임직자의 답사와 김덕영 목사(지방회장)의 축도로 은 혜롭고 거룩하게 임직예배를 마쳤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구조(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콜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생화사진틀(선택형)



▲45인승 버스



▲최고급 리무진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http://agpgs.aogk.or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수입/배급 CBS

6월 13일, 전국 극장 대개봉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왠지 모르게 책에서 눈을 떼 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만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까지!"

단체관람 신청 ☎ 02.2650.7942(친구사이)

facebook.com/cbscinema

TALK CBS시네마

제40회 신춘포럼 ‘위기 시대, 대응과 방안’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

제40회 신춘포럼(대표 박노훈 목사)이 지난 5월 23일(목) 신춘성결교회 아천홀에서 ‘위기의 시대, 그 대응과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영권 교수(연세대)와 이의음 교수(국민대)가 나서 △성도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목회자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목회자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연한 이의음 교수는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상황의 원인으로 교인수의 감소, 교회 재정상의 위기, 사역자의 감소, 목회자의 영향력 약화, 미래 목회를 대비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성 교인의 이탈을 막고, 빚지는 교회 건축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통적인 목회 방식에서 벗어나고 달라진 목회환경과 시대적 과제에 주목하라고 요청했다.

이 교수는 “전통적인 교회 모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인도, 환경도 달라졌다. 사람 많이 모이는 목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삶의 현장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교인 수가 줄고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도 위기가지만 한국교회가 당면한 진짜 위기는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먼저 불의한 경제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는 최근 한국기독교윤리회합이 발표한 신학 선언문을 제시했다.

이에 이 교수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 축적, 교세의 경쟁적 확장을 위한 무리한 헌금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선언문은 교회가 이 같은 행위를 멈추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는 선한 행실을 통해



차별과 배제의 경제를 넘어 믿음, 소망, 사랑의 경제를 실천하는 대안적 생존 공동체를 이루라고 호소하고 있다. 교회가 비본질을 내려놓고 본질을 추구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버클레이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에는 한 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고 했다”며,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매신저다. 좋은 아이디어 몇 가지로 교회와 목회자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목회자의 위기는 삶이 아니라 말로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생긴다. 목회자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아야 말씀에 생명력이 생긴다”고 역설했다.

이날 유영권 교수는 돌봄의 공동체 조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속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면서,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남성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교회에서 치료공동체 역할을 해줘야 한다. 사회가 숨이 막히고 허덕이는 사회 속에서 숨

쉬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며, 과연 교회가 이렇게 숨 쉬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 반문했다.

유 교수는 ‘관심’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 한 성도가 ‘응애’할 때 그 소리를 경청해 주는 돌봄의 섬김이 필요하다”며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율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나 마찬가지로. 아이가 먹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엄마가 잘 알아주면 선한 나가 되고, 반대로 알아주지 못하면 악한 경험에 쌓여 악한 나가 된다”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돌봄을 받지 못한 양육과정, 의당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공격본능이 증가한다. 그러면 바깥세상은 날 잡아먹으려 한다는 피해망상이 생기게 된다. 이런 악한 대상의 심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설교 하더라도 곧 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한국지역복음화협 주최 6월 18일(화)~20일(목)

목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도들을 섬기며 사역하는 목회자 사모들이 참석하여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며, 마음껏 행복해하는 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오는 6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진행된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분(이사장 피종진 목사·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주최하며 CTS기독교TV, CBS, febc극동방송 국민일보 예정교회와 공동후원하여 진행되는 이번 제25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특별히 예정교회(설동욱 목사)가 다산 신도사에 새롭게 건축한 새 성전에서 개최된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 바른 목회에 대한 정의도 변화되고 있어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 목회는 더욱 어려워지며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가 없다.

또한, 목회자가 목양해야 할 성도들도 변하고 있어 그들이 살아가는 현대에 대한 사상과 가치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목회해야 한다.

목회는 사람의 힘과 능력 그리고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그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이다.

사모들은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목회사역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며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목회사역에 대한 위로를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다.



백석대, KOICA ODA 심포지엄 개최

(공적개발원조)

백석대학교(총장 정중현)는 지난 5월 23일(목) 오전 11시, 교내 도서관 6층 원격화상강의실에서 KOICA의 후원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제안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준비됐으며, 한양대 박한미 교수가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글로벌 시민의식’, 백석대 유영미 교수가 ‘빈곤의 개념과 세계시민의식’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재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제안서는 △태국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김나영) △태국 영유아 예방접종 및 부모교육(한서희) △초등학생 대상 네덜란드 타리아 룬비니 산간지역의 보건인식 개선교육(이유영) △태국 치앙마이대학교 함께하는 에이즈 예방사업(정민서) △네덜란드의 성교육을 통한 성(性)인식 함양(김민준) 등이다.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심선주 지도교수는 “재학생들이 네덜란드 태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빈곤,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본다”며 “내년 네덜란드 떠나기 전 철저하게 교육하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드비전, 위생용품 지원 위한 모금 캠페인

‘세계 월경의 날’ 맞아 개발도상국 5개국에 위생용품 지원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개발도상국 5개국의 여자 아이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 ‘프로젝트 60(Protect 60)’을 시작했다.

‘프로젝트 60’은 소녀들의 60일을 지킨다는 의미로, 1년 평균 월경 기간인 60일 동안 생리대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 소녀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모금 캠페인이다.

월드뱅크(WB)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절대빈곤선 아래(하루 1.9달러 이하)에서 생활하는 10대 소녀의 수는 약 1억 명이다. 이들은 월경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초경을 맞이하고 있으며, 88%의 인도 소녀들은 비위생적인 천과 곡물 찢질 등을 생리대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월경기간 동안 소녀들을 생리 오두막이라는 공간에 가두고, 가정과 학교로부터 강제로 격리시키기도 했다.

이에 월드비전은 ‘프로젝트 60’ 캠페인을 통해 네팔, 인도,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총 5개국 소녀들에

게 생리대를 지원하고 성교육과 위생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5월 28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월드비전 홈페이지 내 캠페인 배너 또는 대표전화(02-2078-7000)를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월 2만원 정기 후원 시, 8명의 소녀들이 여아위생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월드비전은 가난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초혼, 교육차별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여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한해 국내외 4,712명의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했고, 11,200명에게 성교육과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케냐, 탄자니아, 인도, 네팔 총 4개국에 여아 친화적 화장실 18개를 건립해 4,533명의 아이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귀한 헌신으로 시골마을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도들이 농사지는 달고 맛있는 무안군 양파 예약주문 받습니다.
오래 저장해두고 먹을 수 있는 만생종 양파입니다.
수분이 낮고 당도가 높아 맛있습니다.
수입은 예배당건축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❶ 양파 20kg 1자루 택배비 포함 27000원
- ❷ 양파즙 200개 1박스 60,000원
- ❸ 자색 양파즙 1박스 200개 80,000원
- ❹ 도라지·배·더덕 혼합즙 150개 1박스 70,000원
200개 1박스 90,000원
- ❺ 여성갱년기와 골다공증에 탁월한 침즙 100개 1박스 100,000원
- ❻ 무안소금 20Kg1 자루 15,000

무안군 해제면 순복음은혜교회 왕상엽 목사 드림

구입문의 010-8060-1141
계좌 농협 628-02-097358 예금주 왕상엽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생명나눔예배, 기쁨과 소망 나눠”

몸과 마음 다해 이웃사랑 실천하는 축복의 자리...섬김의 기쁨 감사



교회를 세우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과 나누고자 한 교회가 생명나눔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예향교회(담임 백성훈 목사)가 지난 6월 2일(주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를 초청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부활주일부터 오는 성령강림절까지를 생명을 전하는 ‘기쁨 나눔의 50일’로 정하고 다양한 섬김을 이어온 예향교회는 2일 주일,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그 기쁨을 나눴다.

백성훈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지난 한 달간 전교회와 연주, 강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기간을 가졌다”며 “오늘 드리는 생명나눔예배를 통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생명을 주고받은 주인공들의 따뜻한 사연을 담은 간증 영상이 상영됐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417명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생명나눔의 섬김에 동참했다.

참했다.

예향교회는 지난 2006년과 2011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생명나눔예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1,100여 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특히 2011년 생명나눔예배 당시 암 투병 중에도 희망등록에 참여한 이준욱 권사는 이듬해 세상을 떠나며 각막을 기증해 두 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경남 신창군 소재 소정교회(담임 이종철 목사)에서도 생명나눔의 귀한 섬김이 이어져 28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을 약속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사람의 장기기증운동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해주 감사하다”며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나누는 이 일이 한국교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문의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3992

한장총 대표회장, 그룹홈 요셉천사의 집 방문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에서는 지난 5월 27일(월) 요셉천사의 집(서울시 양천구)을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보호 청소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셉천사의 집은 그룹홈(group home)으로, 97년부터 서울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보호가 필요한 소년, 소녀들에게 시설보호소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 보호하는 것이다. 한 명의 관리인이 아이들 4-5명을 가족과 같이 보호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요셉천사의 집 이대호 센터장은 6명의 아이들을 가족과 같이 보호하고 있는데, 3살 혹은 4살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막내는 중학교 1학년이 됐다고 하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며, 애로사항은 그룹홈에 대해 알려지지 않아 후원이 부족하다고 했다.

송태섭 목사(한장총 대표회장)는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그룹홈이라는 가



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을 보니 안심이 된다고 하며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했다.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중1)를 위해 송태섭

목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한장총에서는 총무 김고현 목사, 사무총장 김명일 목사가 함께 했다.

홀트, 제13회 아름다운 청소년 꿈 지원금 전달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는 최근 본부(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소재) 6층 강당에서 홀트아동복지회 김호현 회장과 윤복 홍보대사, 심사

위원인 이화여자대학교 이승연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아름다운 청소년 꿈 지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본 지원사업은 한샘DBEW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지원되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아름다운 청소년”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소년 20명에게 지원금과 지원증서 격려의 자리로 진행됐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소년 20명을 선발해 지원금 300만 원 및 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후 아름다운 청소년은 자원봉사활동과 꿈 캠프, 꿈 미션 발표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을 위해 도전하고 성장한 정도를 돌아보게 된다.

올해 선발된 사세민(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 3학년)양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요리사가 되고자 쇼콜라리에, 제과제빵 교육을 받으며 노력한 결과 2019년 3월에 한국조리기능장협회 주관 양식소스 과정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1걸음 당 1원씩 후원 ‘스텝포워터 희망걷기대회’

식수문제 해결 위해 4km 코스 걷는 3000여 시민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4시간을 걷는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일상을 공감하고 체험하기 위한 걷기대회가 열렸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욱)는 지난 6월 1일(토)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 공원에서 ‘스텝포워터(STEP FOR WATER)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굿네이버스 식수위생지원사업 ‘워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걷기대회는 시민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행되었다.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대공원에 마련된 4km의 코스를 걸으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였으

며, 이를 통해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평균 4시간을 걸을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또한, 굿네이버스에서 출시한 ‘스텝포워터(STEP FOR WATER)’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걸으면 한 걸음 당 1원을 모을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인 만큼의 금액은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기업에서 식수위생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후원할 예정이다. 희망걷기대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스텝포워터’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누구나 걸음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전도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저는 1991년 11월 5일, 제가 개척한 대전천양교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전도사 4년 포한하면 31년을 부흥사로 세계 몇 개국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천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말씀도 증거하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전단지들을 돌리며 전도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확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가족세트전도를 하는 박영수 목사를 만났습니다.

2018년 8월, 부흥사연수 수련회에 감의를 하러 갔다가 박영수 목사를 만났지만 교만하였던 저는 귀담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영수 목사에게 가족세트전도를 배우고 현장전도에 나섰더라면 우리 교회가 더 일찍 부흥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확신을 갖고 전도하고 있으니 앞으로 큰 비전과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수요일,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를 15년 동안 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전도법을 배웠습니다. 평내 호평 전철역으로 가면서 현장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전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며 저도 똑같이 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는 할아버지를 영접기도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매일 전화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시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도하라고 설교는 크게 외쳤지만 전도의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세트전도법을 통해 오직 예수, 오직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지혜 있는 자는 궁정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딤후 12:3)

가족세트전도 162기 회장 임찬양 목사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20년을 넘어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까지...”

감사충만 사명감충만 ... 세계선교연합회 창립20주년 축복성회

은혜와진리교회 세계선교연합회(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창립 20주년 기념 축복성회가 지난 5월 30일(목) 저녁 안양성전에서 선교회원들과 청년봉사선교회 청년을 비롯한 성도들이 참석하여 성대하고 은혜롭게 열렸다.

이날 성회는 청년봉사선교회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시간을 가진 후, 선교위원장 권영호 장로의 사회로 IMCR대회(세계선교와 교회부흥을 위한 국제세미나) 준비실장 박남수 장로의 기도, 20년 근속패 수여식, 20주년 기념영상 시청, GNTC청년성가대·송혜원 지휘자·세계선교연합회 그레이스 & 트루스 미션콰이어의 특송,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서로 드러졌다.

근속패 수여식에서 조용목 목사는 창립 당시부터 세계선교연합회의 중책을 맡아 20년 동안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 온 선교위원장 권영호 장로와 중국선교회 회장 이상태 장로 등 27명의 임·회원들에게 근속패를 수여하며 격려해 주었다.

이어서 해외 선교사들의 축하메시지 해외 선교지 교회와 신학교 등의 현황, 미국 하나님의성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의 조용목 목사의 설교와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콰이어의 찬양 장면, 1999년 5월 27일 창립 이후 세계선교연합회의 국내외 활동을 담은 20년을 넘어서, 200개국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할'이란 주제의 동영상도 방영되어 참석자들은 지난 20년간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돌아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고 감격하였다.

조용목 목사는 행 1:6-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은혜와진리교회가 해외에 많은 지교회와 성전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도와 광역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은혜로 된 것이라고 역설하고, 회원들의 헌신을 치하하였다.

참석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아시아 대륙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을 기원하며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고, 조용목 목사는 회원과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었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증명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8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6월 14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신 재 영
총 무 목사 이 경 진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 진리 교회 장로

복 많이 받은 사람이어

두 발로 걸어 다니십니까?
당신 손으로 밥을 먹습니까?
코로 숨을 쉰니까?
듣고, 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감사하십니까,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임을 아십니까?
당신은 진정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기에도 부족할 뿐입니다.

잠시 세상 살 동안, 주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도성 천국에서,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오나
많은 복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천로역정 애니메이션 개봉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 마련

6월 13일 극장 개봉, ‘크리스천’ 등신대를 찍어 올리면 예매권과 선물 증정

세계 최초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개봉을 앞두고 점차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가 뮤지컬 티켓, 숙박권, 도서 증정부터 등신대와 부채 인증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세계의 베스트셀러 [천로역정]을 원작으로 화려한 천로역정의 세계를 CGI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해 거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가 웰메이드 기독교 애니메이션답게 다양한 관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현재 CBS시네마 공식 SNS에서는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크리스천’ 등신대와 부채 부채를 찍은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 하면 추천을 통해 예매권과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관객들을 위해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작품이 준비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년간 약 천여

회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뮤지컬 ‘천로역정 티켓과 실제로 ‘천로역정 순례길’을 체험해 보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평 필그림하우스 숙박권이 마련되어 있는 한편, 생명의말씀사에서 2019년 2월 새로 출간한 도서 ‘만화로 보는 천로역정 1, 2, 3권 세트’가 준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애니메이션 영화답게 어린이들에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도서 경품도 마련했는데, 넥스CROSS에서 출판한 ‘첫 번째 어린이 성경세트’부터 ‘어린이 부활이 알고 싶다’, ‘어린이 교회가 알고 싶다’까지 의미 있는 도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고의 교편으로 평가받는 ‘천로역정’ 이만삼 전국 기독교인들을 넘어 일반인들에게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6월1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사설

북핵 위기 안보불안 하나님께 기도해야

북한이 핵을 거머쥐고 주변국만 아니라 미국까지 휘둘러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 탄도미사일까지 쏘며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북미정상회담의 가교역할을 한 한국을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과 노벨평화상까지 염두에 두고 북한에 최대의 압박과 회유를 통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2차례나 북미정상회담에 임했지만 결과는 합의 결렬로 돌아왔다. 아직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양쪽의 간극이 너무 커 이대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북핵문제가 교착상태 빠진사이중간에 아이라시아까지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겠다는 나사고 있다. 6자회담까지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관계 강화속에 동북아에서 군사대국 과시와 독자 외교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과 주변 4강이 각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공간이 없다.

현 정세 속 주변국 외교가 중요함에도 한국 정부는 지금 주변국 외교에 실패하고 있다. 주변 4강 외교는 무시한 채 오직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계속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비용이 1억 달러(약

1200억원)가 든다며 비용 탕을 했지만, 미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최소한 연합훈련을 만약 예정대로 진행했다면 약 1천400만 달러(약 160억 원)가 소요됐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는 미국의 한 해 국방비 7000억 달러(약 790조원)의 0.00002%에 불과하다.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동맹을 저버리는 실수를 한 것”이라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폐지만이 아니라 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올리고 있다. 이미 한미당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2018년도 962억 원보다 무려 82%나 증가한 1338억 원인 역대 최고수준으로 증액했다. 북핵대처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안보공백과 경제적 부담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북핵으로 위기가 높아지는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빠진 채 일본은 미국과 공조를 바탕으로 주변국 외교의 외연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지난해 북한 눈치 보기로 존재감도 잃고 안보 불안과 국제사회에서의 파들림에참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떼려 즐거워함지이다 그 아들에게 임함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갈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시 2:11,12)

아동 학대와 ‘사랑의 매’는 구별해야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에 보면,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 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리함에도 정부가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무조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것부터 시행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국가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의 자녀 사랑과 훈육권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미국 의회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권한을 훼손 한다’는 이유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어린 아이들도 부당한 폭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부모에 의한 훈육조차 국가가 근절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의 올바른

자립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아동에 대한 복지는 강화해야되지만, 부모에 의한 아동에 대한 교육과 훈계인 ‘사랑의 매’까지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동에 대한 교육을 국가만이 전담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역할도 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도 보면, ‘배를 아기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잠 13:24) 또 ‘배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 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한다(잠 29:15).

정부가 아동정책을 새롭게 펼치는 것은 좋지만, 부모에 의한 자녀의 훈육 역할까지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들의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오동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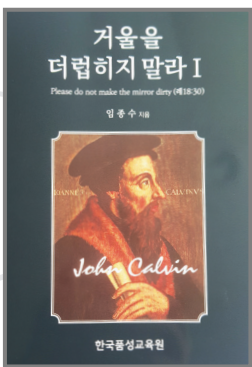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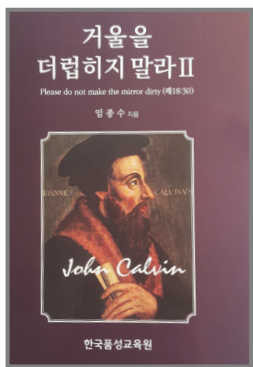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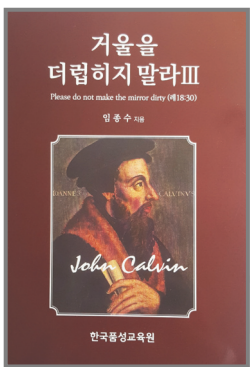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조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세계하나님의성회협의회 총회장 조지 우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은혜와 권능의 말씀 전해

세계하나님의성회협의회 총회장 조지 우드 목사(미국)는 은혜와 진리교회를 방문하여 5월 22일 수요일에 예배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축복하였다.

여섯 번째로 은혜와진리교회를 방문한 조지 우드牧사는 세계하

나님의성회의 실행위원으로 수고하는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헌신과 은혜와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환대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막 5:26-34 말씀을 본문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기는 네 단계라는 제목의 설교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2019년 상반기 계절학기 모집요강

1.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2.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년 6월 03일(월) ~ 2019년 6월 28일(금)

- 합격자 등록 마감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5:00
- 수업일정 : 2019년 7월 01일(월)~04일(목)까지

3. 등록선교한금

- 등록선교한금 : 800,000원(목회자 자녀50%)
숙식 개인부담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
예금주: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원

4.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7-0692,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E-Mail : luvjx7@hanmail.net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제71회 구역장 세미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말씀충만 성령충만... 구령의 열정과 교회목표를 위한 사명감 충만

제71회 구역장 세미나가 5월 27일(월)과 28일(화) 두 차례 은혜와 진리교회 성전별로 나누어 전원성전과 안양성전에서 성대하고 은혜롭게 열렸다.

구역장들은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은혜와 권능의 말씀을 받아 헌신의 자세를 새롭게 하여 교회의 받은 사명과 목표를 위해 전심전력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세미나는 다른 성전과 교구의 구역장들을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올해 상반기 전도상 시상식,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 순서

로 진행되었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마 7:21 말씀을 본문으로 한 특강을 통해 구역장들에게 신령한 지식을 더해주고 구역장 직임에 대한 사명감으로 충만케 해주었다.

조용목 목사는 먼저, 거듭난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하며 ‘거듭남’이란 용어의 개념과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말씀해 주었다.

이어서 거듭난 성도가 되어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

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기도와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주며 놀라운 희망을 갖게 해주는 성경말씀에 대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성도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게 해주시며 복음전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조용목 목사는 구역장들이 모두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

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직임을 훌륭히 수행하게 되도록 신유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다. 특강에 앞서 열린 전도상 시상식에서 조용목 목사는 안양성전 산본6교구 박은경 수석구역장에게 전도특별상을, 수원성전 신영혜 수석구역장을 비롯한 25명의 구역장에게 전도대상을, 장유성전 김영선 남성구역장을 비롯한 1,145명의 구역장들에게 전도상을 각각 수여하며 치하였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제1 학차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 서 교 부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8일(수)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 서 접 수 : 2019년 7월 8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6월 17일(월) ~ 2019년 8월 29일(목)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